

1. 들어가며

수능 영어는 문제만 계속 푼다고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.

주변 친구가 ‘문제만’ 풀었는데 성적이 올랐다면, 다음 3가지 중 하나입니다.

- 기초가 있었지만, ‘수능 문제’에 적응이 안 되어 있던 경우
- 머리가 좋은 경우
- 운이 좋은 경우

현 입시제도에서 ‘수능 영어’의 공부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

무작정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 기출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, 공부방법은 명확한 하나의 길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**당연히 이 명확한 공부방법은 성적상승으로 이어집니다.**

필자가 ‘이 길이 맞다’라고 확신하기까지 달려온 세월이 무려 6년 정도 됩니다.

‘수험생’ 입장에서 6년이란 시간은 누군가 보기에 어리석을 수 있지만, 또한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.

지난 6년간의 시행착오를 돌아보며, 제가 직간접적으로 거친 발자취입니다.

- 인터넷강사
(김기훈, 김정호, 정지웅, 이명학, 조정식, 션t, 전홍철, 조은정, 김광진)
- 동네 영어학원 선생님
- 약 5년간 누적된 수험생들의 기적적인 후기
- study code

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가 느낀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.

‘결국은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’